

제5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제5회 정보통신포럼이 지난달 24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안병업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보통신 관련 인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

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었다.

이날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안병업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 세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물결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의 국가 번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지식, 정보의 축적·유통·활용에 의존한다"면서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 전통, 활발한 벤처창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적합한 주거환경 등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간다면 인터넷 시대는 우리에게 선진국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ASP 산업 컨소시엄(ASPIC Korea)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한국ASP 산업 컨소시엄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가 우리 협회 주최로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병업 정보통신부 장관, 김익래 컨소시엄 위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로 최근 국내 차세대 핵심 인터넷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 서비스다. 현재 국내에서 ASP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 수는 9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ASP(Application

Service

이처럼 ASP서비스가 유망 인터넷 사

업으로 떠오르자 협회는 관련 업체 22개사가 참여하는 「한국ASP산업 컨소시엄(ASPIC Korea)」을 발족시키고 향후 국내 ASP산업 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부 번재일 실장의 ASP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관한 기조연설이 있은 뒤 △기업 정보화지원센터 임춘성 소장의 ASP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LG-EDS시스템 오병기 팀장의 국내 ASP 시장전망 △(주)에스엘아이 최장호 대표이사의 ASP Value Chain과 해외 Business Model △링크웨어(주) 조용준 상무의 분야별 ASP 시장 접근 방안 및 사례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Y2K인증센터 해단식 개최



Y2K119기술지원단 운영 등 국내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Y2K) 문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 Y2K인증센터(원장 최성규)가 김동선 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Y2K인증센터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의 연도전환을 컴퓨터가 인식하

지 못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Y2K 해결방법론 개발, 전문인력 양성, Y2K 부당행위상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 말에는 업계 전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Y2K119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Y2K가 발생된 현장에 기술 지원단 인력을 급파,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Y2K 문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Y2K인증센터는 이날 해단식에서 정보통신부 안병엽 장관, 남궁석 전 장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 중소기업청 허범도 국장, 정보보호센터 이철수 원장, 김길조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장,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실무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업계 실무자, Y2K119기술지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심사원들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인터넷정보기전산업협의회 본격 출범



「인터넷정보기전산업협의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협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건설,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과 제 규정 등이 승인됨으로써 인터넷정보기전산업협의회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LG전자(주)의 정병철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인터넷정보가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동 협의회에 대한 산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

회의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2005년까지 세계 3대 정보 가전국으로 만든다는 「인터넷 정보가전 기술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지난 2월 2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내 정보가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종합적 진흥 육성의 주도적 역할

을 위해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협의회」를 설립, 운영중이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통신과 가전의 융합현상이 2000년대 가정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가전 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부와 산업체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4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실기시험 시행

제4회 인터넷 정보검색사 1급 실기 시험이 지난 3월 5일 서울 숙명여대 등 전국 11개 지역 20개 기관에서 3,000여명의 응시자가 응시한 가운데 시행됐다.

정보검색, 홈페이지 제작 등 2과목을 1, 2교시에 걸쳐 평가한 이번 실기시험에서는 1,614명이 최종 합격해 6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자격인증위원회 출제분과위원회는 이번 시험의 1교시 5번 문항의 경우 6.6%를 답안으로 작성한 일부 수험자들의 답안을 구제하기로

의결했다.

출제분과위원회는 당초 제조업 성장률을 물은 5번 문제의 정답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6.2%만으로 채점했으나, 일부 수험자들이 1995년 불변 가격기준의 제조업 성장을 6.6%를 답안으로 작성함에 따라 출제의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명확한 기준 년도가 제시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5번 문제의 답안으로 6.6%를 작성한 43명의 응시자가 추가로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정보화사회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십시오”

정보화사회는 그동안 정보통신 부문 국내외 최신 동향과 정보 전달로 정보통신 전문지로서의 명성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정부 정책 소개는 물론 업계 각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기고, 회원사 소식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매월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소개나 게재하고 싶은 글이 있는 분은 정보화사회 편집부로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원고는 매월 20일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시는 방법 : 팩스 : 02-580-0599 / 이메일 : jhchoi@kait.or.kr
- 문의전화 : 02-580-0584, 0587